

해외의약뉴스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난소암의 위험을 20% 낮춘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이 난소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매일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여성은 주 1회 이하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여성들에 비해 난소암의 위험이 20% 낮았다. 주 1회 이상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하는 여성은 복용 횟수가 적은 여성에 비해 난소암의 위험이 10% 낮았고,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은 난소암의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키워드

아스피린, 난소암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매일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난소암에 걸릴 위험을 2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의 연구진들은 8,000명의 난소암 환자와 12,000명의 정상인이 참여한 12개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는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이 난소암의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다.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 여성은 18%였으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¹⁾를 복용한 여성은 24%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여성은 16%였다. 연구에 의하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여성은 주 1회 이하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여성들에 비해 난소암의 위험이 20% 낮았다.

또한 주 1회 이상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하는 여성은 복용횟수가 적은 여성에 비해 난소암의 위험이 10% 낮았지만, 연구진은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은 난소암의 위험과 무관했다.

이 연구는 2월 6일자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게재되었다.

연구는 아스피린의 사용과 난소암의 위험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했지만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증명하지 못했다.

1) 이부프로펜(ibuprofen)과 나프록센(naproxen) 같은 약을 포함

Britton Trabert²⁾는 "심장마비 예방효과가 있는 아스피린이 난소암의 위험도 줄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흥미롭다고 해서 현재 치료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스피린이 난소암의 위험을 어떻게 줄여주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아스피린의 위험성과 효과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탐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기적인 아스피린의 사용은 소화기관의 출혈이나 출혈성 뇌졸중(hemorrhagic stroke)같은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지속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미국에는 매년 20,000명 이상의 여성이 난소암 진단을 받으며 14,000명 이상이 난소암으로 사망한다.

■ 원문정보 ■

<http://consumer.healthday.com/general-health-information-16/aspirin-news-46/daily-aspirin-may-guard-against-ovarian-cancer-684648.html>

2) 미국 국립암센터 암 역학연구소